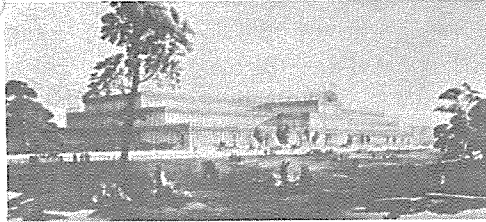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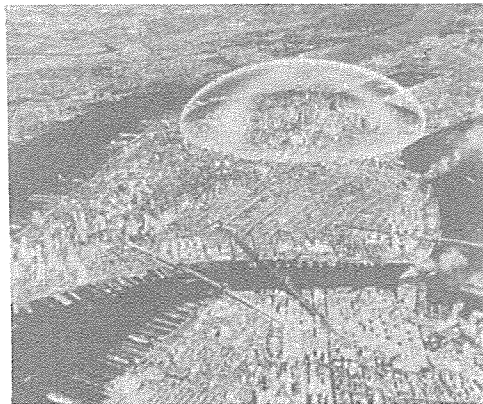


現代建築에 있어서의 五大이즘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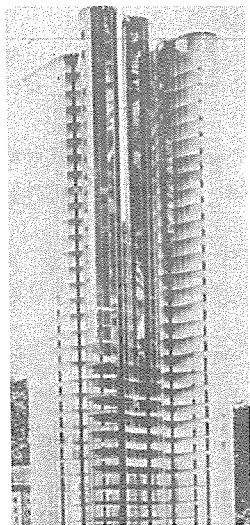
(영국태생 건축가이며 현재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수로서 과거 설계실무를 거쳐 지금은 건축평론의 전문직 교수이며 이 강연문은 81년 7월 8일 일본 동경대학 건축과 대학원에서 강연한 내용임)



① 박스톤 / 수정궁, 1851



② 박민스타-후라 / 후라의 돔, 1968



③ 미스·판·데르·로에 / 유리의 마천루, 1921.



④ SOM / 해군포병학교, 1954

(다음은 英國태생으로 현재 美國콜롬비아 대학교수로서 과거 설계 실무를 거쳐 지금은 건축평론가로도 활약 중인 케네스·후램프턴(Kenneth Frampton)교수가 지난해 7월 8일 일본 동경대학 건축과 대학원에서 행한 강연 내용을 A+U誌 81년 10월호에서 보고 옮긴 것이다. / 편집자 /)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다섯 가지 이즘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테마는 때에 따라서는 너무나 직선적인 표현으로서 이데올로기적이며 논리적이 되기 쉬우나 현재 우리들이 포스트 모던 건축이란 독특한 시대에 직면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대담한 논의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부터 몇 개로 분류를 해서 시도해 보려는 것이며 그것들은 내가 약 15년 정도 현대건축에 관하여 진행해온 하나의 연구성과인 것이다.

이와 같은 분류에는 때에 따라서는 한쪽으로 편중되기 쉬우나 어떤 건축의 성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관계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즘은 20세기 초두의 전위주의자들의 이즘과는 다른 것이며 이것들 중 몇 개는 오늘의 건축가들에 의해 주장된 것이다.

이것들의 이즘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보면 오늘의 건축상황을 설명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좌표와 같은 것이며 건축에 대한 현대적이고 서양적인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들 중에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프로덕티즘(Productivism)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이 말은 건축을 다시 기술적 생산물, 그 자체로 환원하려고하는 생각을 의미하고 있다.

이 이즘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근대적인 것이므로 맨 먼저 열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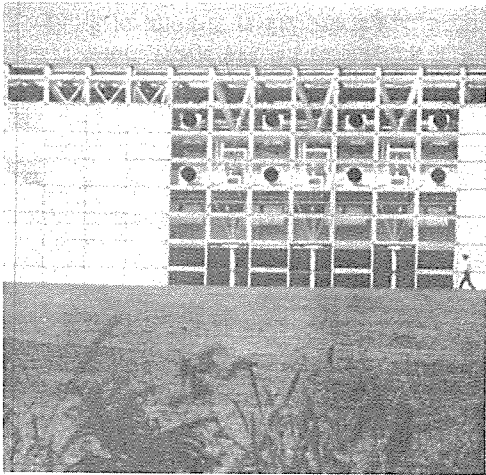
프로덕티즘의 이데올로기를 가장 단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나는 콘라트·왁스만이 1961년에 쓴 「건물의 轉向点」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프로덕티즘의 건축으로서의 박스톤과 라우돈에 의한 1851년의 런던의 水晶宮, 박민스타, 후라의 돔, 1920년 경의 미·스의 스카이스크레파, 윌리엄·파레스에 의한 로스엔젤스·타운을 위한 '空想적 프로젝트', SOM의 해군 포병학교, 맥스·빌에 의한 1963년의 로잔느전시장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 프로덕티즘의 건축 중에도 다른主義의 건축과 같거나 오히려 그 이상으로 여러가지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노만·호스타의 작품에서 볼 수 있으며 그것은 「년·리드미컬」한 것에서 부터 빼아노·앤드·로자스에 의한 파리의 뽕피두 센터와 같은 「리드미컬」한 것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프로덕티즘의 건축가들이 건축을 외부의 콘택트와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은 독립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건축은 산업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대규모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져 있고 최근 築波大学도시를 본 결과 이 대학도시는 영국의 밀턴·케인즈와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했고 밀턴·케인즈의 플랜닝은 참으로 프로덕티즘적 태도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후리·스탄팅의 건물, 개방한 그릿트·시스템등의 개념의 적용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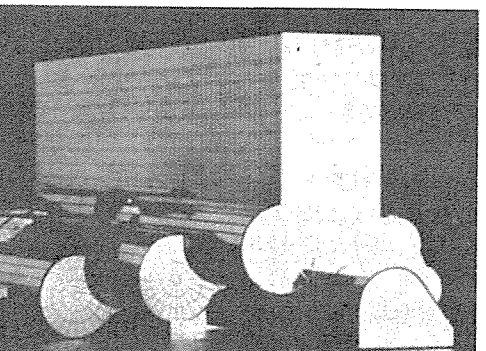
⑤ 웨스트-앵커 / 세인트베리-미술센터, 1977



⑥ 렌도-베아노 앤드 로자스 / 뽕피두 센터



⑦ 시저-베리 / 페시픽 디자인 센터 1971



⑧ 안소니-람스덴 / 비바리스 호텔 1973

그러면 다음은 노만·호스타의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들은 앞에서「년·리드미컬」한 프로덕티즘 건축이라고 일컬은 것으로서 공업기술의 산물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건축이며 베아노·앤드·로자스의 볼피드·센터, 여기에서는「리드미컬」한 프로덕티즘 한 건축이라고 호칭을 서큐레이션이나 구조시스템이 표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고 이것은 노만·호스타의 작품만큼 還元的이지는 않다.

주위의 콘텍스터와의 관계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 호스타의 작품에서는 건물의 스케일이나 형태가 주위의 환경과의 관계는 매우 희박하며 이 건물의 스킵을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은 50m의 대스팬이며 만약 이 스펜 사이에 기둥이 끼이거나 하면 보의 길이가 작아짐으로 건물의 높이는 약간 작아 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설계자에 의해서 공간의 프렉서빌리티(Flexibility)를 확보한다고 하는 생각은 그의 理想的인 것으로서 그에게는 50m의 스펜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으며 그리하여 이 건물의 정면은 공업생산물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 作品에 있어서 환경과의 기묘한 관계는 오히려 이태리의 스파·스타디오가 아이러니에 찬 드로잉에 표시한 것과 類似하다고 말할 수 있다.

호스타의 작품은 공업생산물로 된 패키지이나 이러한 경향의 건축은 사리엔파의 건축가들의 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케윈·로제에 의한 프로젝트, 안소니·람스덴에 의한 로스엔젤스의 Century City 케리에 의한 로스의 Civic Desing·Center등을 열거 할 수 있다.

이 케리의 작품을 호스타의 先例와 비교하면 리드미컬하기는 하나 역시 공업생산물의 패키지인 것이며 또한 람스덴에 의한 사우디 아라비아의 프로젝트나 로스의 비바리 힐스·호텔, 노만·화스타에 의한 영국의 세인트베리·센터, 동경에 있는 케리의 미국 대사관등도 이러한 경향의 좋은 예이다.

이 프로덕티즘은 미스·반·데르·로에의 유리의 스카이스크래퍼에서 볼 수 있는 특질 — 거의 무에 가까운 것 (beinahe nichts) — 과 유사하다. 이들 작품의 이점은 職人芸가 경제적으로 극히 고가이거나 또는 衰退한 곳에 있으며 건물의 확실한 생산성이나 성능을 얻을 수가 있는 점이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프로덕티즘 있어서는 건축에 건물의 공공성이나 성격을 표현하는데 곤란한 것이 단점이며 그 예로써 건물의 엔트런스(入口)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점이 문제이며 케리의 미국 대사관이나 웨스타의 세인트베리 센터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명백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제이의 이즘은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며 이 용어는 오늘까지도 내셔널리즘이라고 불리는 운동의 창시자적인 아르테, 루시, 조루쥬, 그랏시등 이태리인들이 사용한 의의로서의 내셔널리즘인 것이다.

이 이즘에 의한 規範의인 텍스트로서는 루시의「도시의 건축」(1966년)을 들 수 있는데 이 운동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 원리의 첫째로서 건축은 자율적인 언어이며 스스로의 형태적인 것과 기술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곧 조각과 회화와의 다른 점인데 예를 들면 슈세베·테라니의 1920년대 중반기의 작품으로서 세루히티의 모뉴먼트는 건축독자의 언어를 가진 작품의 좋은 예이며 건축의 자율성 이것이 제일인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건축은 건축이 역사적으로 가지는 타입과의 연속성 내지 그 전개에 기초를 두는데 있어 공공상의, 다시말하면 문화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예를 들면 루시와 스킨라리에 의한 시티홀의 계획안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17세기적인 중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타입에 기초를 둔 디자인이 되고 있다.

제3의 원리로서 공공건축내지는 공공적 모뉴먼트는 도시의 개념과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도시란 여러가지 모뉴먼트한 단편의 누적 이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예를 들면 루시의 빠르마의 극장을 위한 프로젝트에서는 아케이드가 역사적 도시와의 연속성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 4의 원리는 이러한 도시의 단편은 단순히 시민의 공공성을 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오늘날과 같이 대도시적 상황에서 잃어버린 도시의 전통적 개념을 적극적으로 재생해 낼 수 있는 것이며 이 원리는 궁극적으로 건축이란 축소품으로서의 도시, 즉 「도시중의 작은 도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루시의 가라라테제의 집합주택이나 그랏슈의 학생료에서 볼 수 있는 아케이드는 확실히 전통적인 도시의 개념을 환기하는 건축으로 디자인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 5의 원리로는 이러한 역사적인 타입의 유사성을 가지는 것과 같이 디자인 된 건축은 고전주의 건축과 같이 뷔나큐라-건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이태리의 내셔널리즘, 즉 그 자체에 중요한 건축 작품으로서 독일의 건축가 하인리히 뫼세노우에 의한 금세기 초두의 작품을 들 수 있으며 그의 작품은 뷔나큐라와 크라시즘 건축물의 코-드를 각각 묘하게 변화시켜 하나의 작품으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그의 작품에 있어서의 서양적인 면에 동양적인 요소가 가미되기도 하며 이와같이 고전과 뷔나큐라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뫼세노우의 작품은 루시의 작품으로 흘러간 것으로도 말할 수 있다.

다음은 레온·크리에의 이론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그의 드로잉은 자유학습적인 건물, 개방된 도시라고 말한 프로덕티즘적 건축의 원리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실제 그의 드로잉에서 것은 볼 수 있는 도시속의 또 하나의 도시로서 모뉴멘탈적인 건축인 것이다.

또한 크리에의 작품에는 공업기술에 따라 건축을 만들려고 하는 프로덕티즘적인 이념에의 반발과 건축은 예술이라고 한 20세기 초두의 전위주의자들의 생각에 반발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러한 반발은 그랏슈의 작품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내셔널리즘에 대한 평가와 비평을 크리에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평가되는 점은 기존의 도시의 콘텍스트의 중시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도시에 있어서 각종 모뉴멘트의 배치, 동선의 시스템에 대한 배려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한 기존의 배경상에 새로운 계획을 중첩해가는 手法인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밀튼·케인즈에 있어서 그 방법과 전혀 다른 逆의 방법인 것이며 이런 점은 적극적으로 평가 될 수 있고 역으로 비평하고자 하는 점은 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中世주의라 말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中世에 대한 강한 향수적인 태도를 들 수가 있으며 즉 그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이미지이며 이것이 무비평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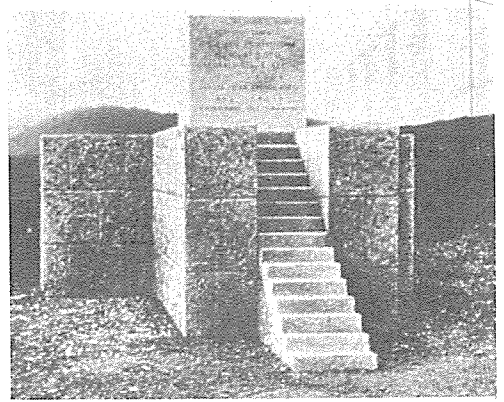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 내셔널리즘적 태도에 있어서 하나의 결론적인 것으로서-물론 이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운간스의 작품을 예로써 들 수 있으며 그의 뉴욕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그때 19세기에 볼 수 있었던 건축과 도시의 타입을 답습하는 것 처럼 도시속에 도시를 만든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새로운 공업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응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크리에가 가지고 있었던 공업기술에 대한 감정적 반발이라고 하는 하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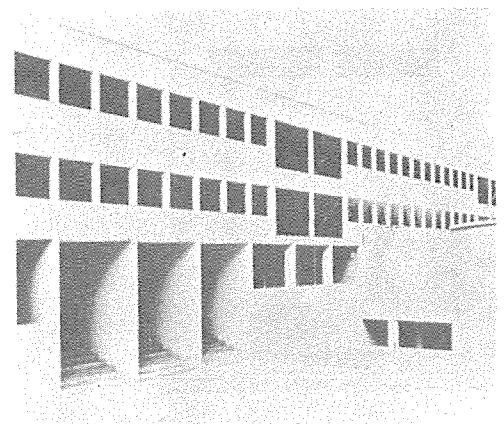
세번째의 이즘은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먼저 몇 장의 슬라이드를 보아주었으면 한다.

여기에 제시하는 것은 뷔리외에 의한 작년의 베니스·위안나레에 발표한 작품, 아키칼럼(archicolumn)이 초기에 발표한 건축의 개념의 드로잉, 미국 가정의 일반적인 풍경, 복장의 상용으로 사용한 파스메이의 주택의 포스터이며 이것들은 포퓰리즘을 생각할 때 한번씩 거치는 것으로서 대중의 취미에 호소해 오는 것이며 대중이 구하는 것을 近大建築을 기초로 만들어 내는 자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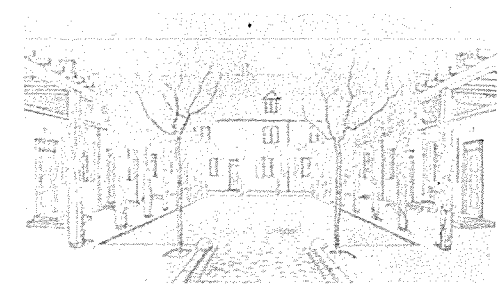
이러한 포퓰리즘의 단서라고 할 수 있는 논문으로서는 로마-트·윈체리의 「건축에 있어서 複合과 対立」(1966년)을 들 수가 있으며 이 著作은 루시와 크라시의 책과 같은 해에 출판되었고, 왁스만의 책이 5년후에 출판되었으며 이때부터 1960년대의 하반기를 건축의 하나의 전환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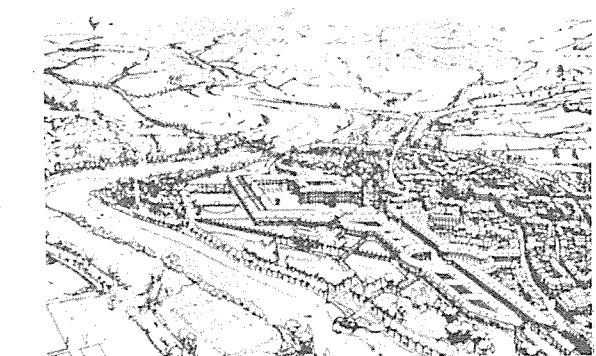
⑨ 쥬세베·테라니 / 세루헛지의 모뉴먼트, 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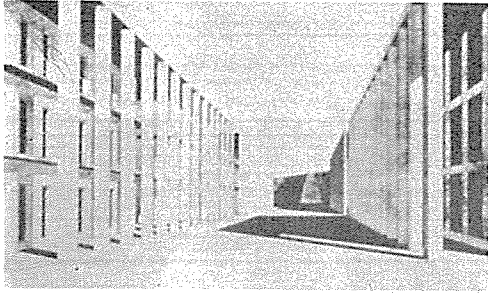
⑩ 아르드·루시 / 가라라테제의 집합주택,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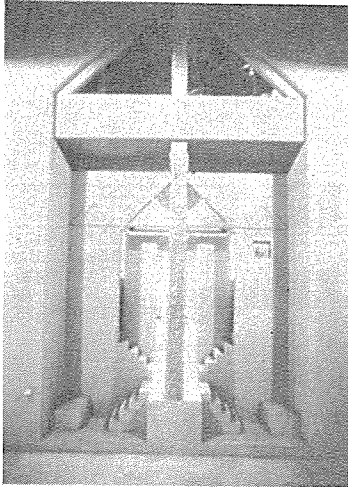
⑪ 하인리히·뫼세노우 / 주택의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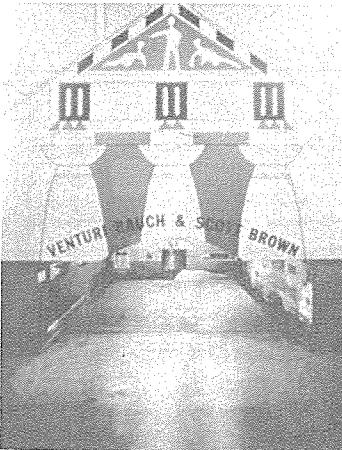
⑫ 레온·크리에 / 에리테루나하 계획안, 1970



⑬ 조루도·그랏슈 / 기에티의 학생로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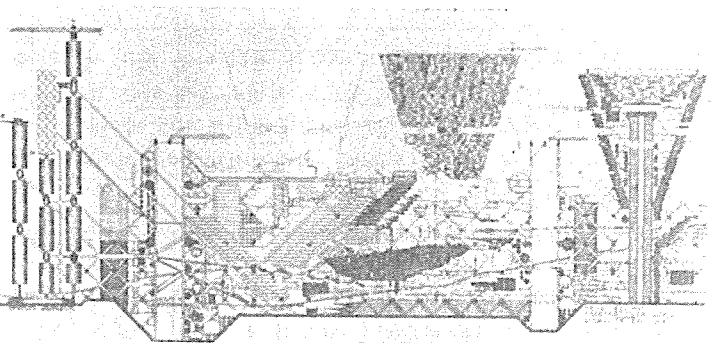
⑭ 후랑코·부리니, 라우라·델메스 / 베니스 뷔엔나레 출품작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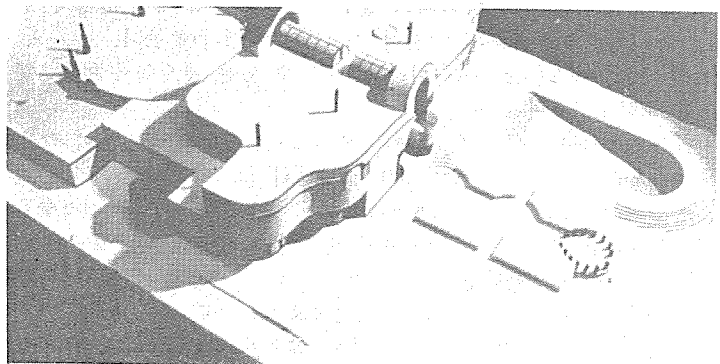
⑮ 빈체리, 로-체, 스콧드 브라운 / 베니스 뷔엔나레 출품작 1980



⑯ 찰스·무어 / 뉴오랜스의 이태리 광장, 1976.



⑰ 아키카칼럼 / 푸라그·인·시티, 1964



⑰ 스타리-타이거-맨 / 빌라·마다마의 구상에 의한 주택.

⑱ 찰스·무어 / 뉴오랜스의 이태리 광장, 1976.

빈투리의 「메인 스토리도 여간 나쁘지 않다」고 한 말이 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포퓰리즘은 기존의 대중문화를 긍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의 소비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포퓰리즘의 건축은 어떤 종류의 무대장치와 같은 것으로 영화가 각종 무대장치에 따라 비현실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며 예로써 스타리·타이거맨이 베니스 뷔엔나레에 제출한 작품에 잘 표현되고 있다.

그리하여 포퓰리즘의 건축은 한편으로는 表面적인 역사주의, 즉 여러가지 역사적 실험을 대중취미에 맞추어 驅使한다고 하는 국면을 가지고 있고 이 역사주의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포퓰리즘과 내셔널리즘은 接點을 가지는 것이 된다.

예를 들면 베니스 뷔엔나레에 출품된 것의 대부분은 거의 이 경향의 것이며 불과 몇 사람의 건축가들, 즉 한스·호라인이나 磯崎新등이 이런 경향과는 입장을 달리하는 작품을 제출한 것이다.

내셔널리즘이 기본적으로는 이태리적이며 프로덕티즘이 영국적인 것과 같이 포퓰리즘은 기본적으로 미국적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스타링에 의한 뉴욕의 집합주택계획, 그레이우스의 프로젝트, 토머스·고든·스미스에 의한 샌프란시스코의 주택, 아란·그린바-그에 의한 슈퍼마켈의 프로젝트, 스타리·타이거맨의 프로젝트, 스타에 의한 折衷主義나 인터리어등은 그 좋은 예인 것이다.

또한 찰스무어에 의한 뉴오랜스의 이태리 廣場에서는 중앙의 연못이 이태리의 形을 하고 있는데 분수가 처음에는 로마의 위치에 놓여 있었으나 이 지역의 이태리住民이 주로 시시리섬에서 온것을 알자마자 분수는 시시리섬의 위치에 바꿔 놓게 된 것이고 이와같이 포퓰리즘의 건축은 무대이며 어떤 종류의 카니발을 연출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포퓰리즘의 건축은 오늘의 미국에서는 매우 效의적으로 받아들여져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비교적 값싼것으로 또한 무엇이라고 해도 표면적으로는 대중의 호의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